

‘탱크데이’ 영향? 5·18 기념식 이후에도 묘지 참배 이어져

부처님오신날 연휴기간 약 8천명 찾아
“오월 정신 헌법 수록으로 왜곡 근절”
이달 19만여명 방문...작년 23만명
내일 부활제 끝으로 주요행사 마무리

“내란의 밤을 물리친 오월 광주의 의미와 아픔을 회화화한거죠.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만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요.”

25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조소희(64·여)씨는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사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지난 지 일주일여가 됐지만, 이날 민주묘지에는 부처님오신날 연휴를 맞아 참배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오월 영령의 가족과 해외나 타지에서 온 참배객들은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민주영혼을 지냈고, 찾아오는 묘

소앞에서 묵념과 절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제2묘역에서 한 어르신은 “5·18 이후 계속 힘들어하던 아들이 얼마 전 세상을 먼저 떠났다”며 “안타까운 마음에 묘지를 찾고 있다”고 붉은 눈시울로 말했다.

호주에서 온 로버트(57)씨는 “5·18 당시 10대 소년이었는데,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한국에 있었는지 몰랐다”며 “몇 년전 12·3비상계엄 당시 5·18이 언급되면서 관심이 높아졌는데 오늘 방문을 통해 한국을 넘어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되새겼다”고 말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을 언급하며 5·18 왜곡과 회화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참배객들도 있었다.

안장된 가족을 보러 온 이종훈(60대)씨는 “46년이 지났고, 허위 사실에 대해 처벌하는 법까지 생겼는데도 왜곡·편향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며 “최근 스타벅스 사태는 오월 광주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역사관이 드러

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온 조소희씨는 “탱크데이 논란은 역사적 아픔을 마케팅이란 이름 뒤에서 회화화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편향 시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오월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돼 국가적 가치로 확실하게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님오신날 연휴 동안 민주묘지 방문객은 23일 3천491명, 24일 3천420명, 이날 1천100여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날까지 올해 5월 동안 민주묘지를 찾은 이들은 19만5천917명이다. 최근 3년 중에선 12·3비상계엄 직후였던 지난해가 23만4천97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직전 해는 17만1천340명이었다.

한편 올해 주요 기념행사는 27일 오후 5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부활제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부활제는 1980년 5월27일 옛 전남도청을 수습하다 산화한 오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행사로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주최·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서정우·이연상 기자



‘오월의 꽃, 레페를 만나다’ 지난 23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5·18 청소년문화제 ‘레드 페스타’가 ‘오월의 꽃, 레페를 만나다’란 주제로 열려 시민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 /김애리 기자

“스타벅스코리아, ‘오월 광주’에 석고대죄”

광주변회 성명...시민단체 1인 시위
세월호 참사 ‘미니탱크데이’ 등 논란 ↑
오늘 정몽진 회장 대국민 사과 주목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데이’ 이전에도 사회적 비극이나 애도일을 회화화한 것으로 의심되는 마케팅 전략들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최근 성명서를 통해 “탱크데이 광고는 단순한 마케팅 실수라고 할 수 없다”며 “5·18민주화운동을 조롱의 언어로 소비한 스타벅스코리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광주변회는 “사과문 한 장과 책임자 교체만으로 이 사안을 종결하려하신 안 된다”며 ▲광고 기획·검토·승인 전 과정 투명 공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유족, 광주시민 대상 석고대죄 ▲역사 왜곡·회화화 방지 위한 감수 시스템 마련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이행 방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에서 지난 22일부터 광주 지역 스타벅스 매장 9곳에서 각각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스타벅스를 넘어 신세계그룹 전반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스타벅스코리아가 세월호참

사 12주기였던 지난 4월16일에 진행한 ‘미니탱크데이’와 10주기 때 ‘사이렌 머그’ 홍보를 하는 등 과거 행보가 재조명되면서 이번 사태처럼 적절치 않은 마케팅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 날 뱃사람을 홀려 난파시키는 사이렌을 홍보한 것은 비극을 겨냥한 이벤트라는 이유에서다.

스타벅스코리아의 ‘뉴턴 캔디 핑크 텀블러’도 극우 표현을 빌린 이름이란 의혹도 있다. 일부 극우 커뮤니티에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일을 ‘중력절’로 비하해 표현하는데, 만우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의 이름을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상품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탱크데이사태 초기부터 ‘저질정사차’ 등 강간비판을 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엑스(X·옛트위터)에 “세월호참사 추모일에 사이렌 이벤트 개사다나...”라며 “사건을 연결시켜 보면 이번 5·18이 탱크데이 행사로 광주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를 조롱하고 모욕한 것이 우발적 사건이라 보기에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5·18민주유공자와 시민생태대책위원회가 이번 사태와 관련, 정몽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대표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병합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정 회장 등을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통상적인 고발 사건에 맞춘 절차일 뿐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광주 남구의 한 스타벅스 매점 입구에서 시민운동가가 스타벅스 불매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이지 혐의점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회장은 25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조선패리스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신세계그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재영 기자

무면허 뺑소니 사망사고 불체자 구속영장 보완 왜?

블랙박스·CCTV 없어 조사 난항

해남에서 무면허 교통사망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와 그를 도운 같은 국적·처지의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블랙박스·CCTV 등이 없어 경위 파악이 어려워지고 있다.

25일 해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과 과잉도과 등 혐의를 받는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30대)씨와 B(30대)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27분께 해남군 한편도 2차선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하다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B씨를 불러 그가 몰고 온 차량에 타 도망갔고, 홀로 탑승

해 있던 SUV 운전자 C(40대)씨는 다른 이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8시간30분 만인 22일 오전 5시께 A씨가 거주하는 영암군 소재 원룸 인근 길거리에서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법원에 A·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검찰의 보완 요구로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었고, SUV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며 “사고 현장 인근에 CCTV도 없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B씨는 긴급체포 상태에선 풀려났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인 만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돼 현재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정확히 조사한 후 A·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이재영 기자

지방선거 현수막 훼손 60대女 입건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현수막을 훼손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현수막 훼손) 혐의를 받는 A(60대·여)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북구 용두동 일대에서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이용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현수막 8개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북부

경찰서와 광주경찰청 선거사범수사전담반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밤샘 4시간여 만인 오후 3시10분께 용두동 일대를 배회하던 A씨를 검거하고 범행에 사용된 커터칼도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여죄 등을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찬용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